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0주 】

| | |
|---------------|-------------------|
| 전 주 | 반주자 |
| 임재의 기원 | 오소서, 평화의 임금 |
|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 경배의 찬송 43(통57). 즐겁게 안식할 날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얼었던 땅을 녹이시고 새싹을 돋게 하시더니 태풍과 폭염 가운데서도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셨습니다. 누렇게 물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을 여미게 하시고 고요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엇치락뒤치락 거리는 우리 인생들을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돌보시는 주님이 곁에 계심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감사와 풍요의 계절에도 한숨짓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던 이의 장례를 아홉 달이 가깝도록 못 치르고 있는 용산참사의 유가족들, 불명확한 이유로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들, 각종 재해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고 망연자실해있는 이들. 주님, 그들에게 큰 위로를 베풀어주시며 하루속히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정의를 세워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마5:3,4 인도자

♠ 교 독 문 22. 시편37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조재훈 선생 II. 김재흥 목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312(통341).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다함께

성경봉독 I. 갈2:11-14 박제림 학생

..... II. 눅12:13-21 유경순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권위는 권력으로부터 오지 않는다 김재흥 목사

..... II. 그때 그 부자가 만일 김기석 목사

거둠기도 다함께

- 찬 송 517. 가난한 자 돌봐주며 다함께
-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탐욕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쌓음보다는 나눔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나눔, 그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모두가 부요해지는 길입니다.

다 함 께 : 아멘.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이 쌓아두려 했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나의 입과 주머니로만 향하던 손을 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주린 배와 상처를 돌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아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 | |
|----------------|-------------------|
| 주일 오후 집회 | 수요 집회 |
| 동호회 | 다니엘서 공부 : 이성운 전도사 |
| 아름답도다 형제자매의 사귄 | 기도 : 조항미 집사 |

| | | | |
|-----------------|-------------------|-------------------|------------------|
| 다음 주 예 배 위 원 | 설교 | 기도 | 성경봉독 |
| | 이성운 전도사 한정애 목사 | 최문희 선생 장영숙 전도사 | 배동준 학생 유건형 집사 |

| | | |
|-----|------|-------------------------|
| 10월 | 영접위원 | 조병무 하정석 정한구 최숙화 박홍재 최영혜 |
| | 헌금위원 | 윤석철 유경순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

용서

요즘 나는 유대의 최대 명절, 욥 키프르, 속죄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그 날은 이번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된다. 그 날 우리들은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다. 그간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속하여주심을 구한다. 그 진중한 시간에 종종 예기치 못한 재미난 일들이 생기기도 한다.

어느 해인가 회당 집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지역의 극장을 빌려 모임을 가져야만 했다. 그 날 집회가 끝나고 극장을 빠져나가던 사람들은 그 주에 상영하고 있는 영화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 고개를 뒤로 돌렸다. 영화 제목은 ‘용서 받지 못한 자’였다. 그 다음 해에는 그들에게 행운이 있었기를 바랄 뿐이다.

용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만 한정될 수 없다. 용서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용서가 처벌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고쳐지지는 않는다. 또한 그것은 ‘있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기 싫어서라도 과거를 잊으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용서는 지난 일에 대하여 줄을 긋는 것이다. 오랫동안 끌어온 원한에 대해 ‘굿 바이’라고 말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용서는 성서가 인간에게 준 가장 복된 선물 가운데 하나이다.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사과하는 방법을 몰라서, 사과를 받아들이는 방법을 몰라서 깨어지는가를 생각해보라. 이것은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종교에도 해당되는 것이다. 지난 8년 동안 중동에서 함께 활동했던 그룹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말미암아 자녀를 잃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서로에게 냉소적일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슬픔은 그들을 분리시키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평화가 쉬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아주 비싼 희생을 치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다

큰 누군가가 자신들과 같은 값을 치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들은 학교를 찾아다니며 화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러나 어둠의 날에 그들은 밝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다.

어떤 사람이 숲에서 길을 잃었을 때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 낯선 사람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친구여, 저는 당신에게 길을 가르쳐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길을 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걸어왔던 잘못된 길을 다시 걸어가지는 않을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함께 새로운 길을 찾아봅시다.’

용서는 함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이다. 그리고 때때로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 조나단 섹스, 「낙관주의에서 희망으로」 중에서



용서는 성서가 인간에게 가르쳐준 것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다. 그것은 다가오는 세대에도 그럴 것이다.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가 모든 과학기술적인 문제들은 해결하면서도 분쟁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을 것이다. …… 당신이 상처를 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해라. 그리고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라. 이것은 쉬운 일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믿을 수 없을 만큼 강하다. 싸우는 데는 작은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용서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국화차

찬 가을 한 자락이
여기 환한 유리잔
뜨거운 물 속에서 몸을 푼다
인적 드문 산길에 짙은 햇살
청아한 풀벌레 소리도 함께 녹아든다

언젠가 어느 별에서 만난
정결하고 선한 영혼이
오랜 세월 제 마음을 여며두었다가
고적한 밤 등불 아래
은은히 내 안으로 스며든다
고마운 일이다

- 조향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 | | |
|------------------------------------|------------------|-------------|
| 담임목사 : 김기석 | 부담임목사 : 김재흥 | 원로전도사 : 박옥식 |
|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 | |
|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 | |
|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 | |
|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 | |
| 지휘 : 윤주원 안홍숙 |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 |
|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 도서관장 : 박혜경 | |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경연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숙화 박병구 김정애 박지인 배삼순
 권호진 백묘현 손성현 안정숙 장성호 김혜영 정한구 왕영순 박소진
 조현권 김재흥 최희영 무명

월정헌금:

권 순 윤정화 김미순 박준규 서지영 이재문 윤주원 최윤선 이갑재
 이인웅 오승경 전영자 배부례 박상규 이현순

감사헌금:

송임희 박창운 허정윤 김윤숙 이지훈 김진영 최종훈 김금하 허호범
 박성실 전성오 무명3 승호

생일감사헌금:

신영신 조관행 홍선희

녹색꿈 헌금:

문복순 김지윤 박병구 무명

| 속명 | 인도자 | 속장 | 모인곳 | 다음장소 |
|------|-----|-----|-----|------|
| 에루살렘 | 장혜숙 | 박성실 | 조순덕 | 박영희 |
| 베들레헴 | 노순옥 | 정경례 | 김윤수 | 김미순 |
| 안디옥 | 임정자 | 임정자 | 서원금 | 임정자 |
| 가나안 | 문영혜 | 이명희 | 최종미 | 김진경 |
| 갈릴리 | 안정숙 | 진정숙 | 문금석 | 진정숙 |
| 베다니 | 박홍재 | 곽권희 | 김순복 | 박홍재 |
| 시온 | 박효선 | 허정윤 | 허정윤 | 김정애 |
| 엠마오 | 최숙화 | 권미정 | 최숙화 | 권미정 |
| 에베소 | 이순정 | 김금순 | 강순배 | 오복순 |
| 빌립보 | 이형숙 | 권미숙 | 구성실 | 임영선 |
| 가버나움 | 안홍숙 | 오현정 | 임수연 | 박찬정 |
| 나사렛 | 정영선 | 백혜숙 | 김시영 | 정영선 |
| 갈라디아 | 유경순 | 김명희 | 송양진 | 교회 |
| 고린도 | 이영란 | 이영란 | 배삼순 | 이증자 |
| 다메섹 | 박혜경 | 최영혜 | 최영혜 | 조항미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동호회** : 오늘은 동호회가 있는 날입니다. 환경동호회는 흥릉숲으로 생태 기행을 갑니다. 영화동호회는 '드렁허리 춤추는 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합니다.
2. **예수포럼** :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주관하는 월례 포럼이 19일(월) 우리 교회에서 저녁 6시에 열립니다. 강사는 방인성 목사님(함께여는교회)입니다.
3. **지방 여선교회 계절모임** : 중구용산지방 여선교회 계절모임이 20일(화) 오전 10시에 이태원교회에서 열립니다.
4. **설교강좌** : 월간 '기독교사상'에서 주관하는 설교강좌가 20일(화) 오후 5시에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5. **원로나들이** : 어르신들이 22일(목) 수안보로 나들이를 가십니다. 교회에서 아침 8시에 모입니다.
6. **가을농활** : 5남선교회가 23일(금), 24일(토) 천안 단비교회로 가을 농활을 갑니다. 23일 저녁 7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7. **추수감사** : 우리교회는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제단 장식을 위해 각 선교회별로 곡식과 과일을 10월 31일(토)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8. **신앙실천** :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라는 노랫말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마음을 담아 편지를 한 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 식당 봉사 : 시온 속 (다음 주 : 엠마오 속)

* 설거지 봉사 : 광상준 최경미 (다음 주 : 한상익 이준하)

새교우 소개

오현창 (3남선교회)

◇ 집 회 안 내 ◇

| 부별 | 시간 | 장소 | 부별 | 시간 | 장소 |
|-------|-------|-------|-------|-------|------|
| 유 아 부 | 10:50 | 유아부실 | 1부예배 | 09:30 | 교육관 |
| 유 치 부 | 10:50 | 유치부실 | 2부예배 | 11:00 | 대예배실 |
| 유초등부 | 10:50 | 교육관 | 오후집회 | 14:00 | 교육관 |
| 중고등부 | 10:50 | 중고등부실 | 수요집회 | 19:30 | 교육관 |
| 청년회 | 13:30 | 청년회실 | 새벽기도회 | 06:00 | 교육관 |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